

SPORTS

광주FC, 대전 원정서 순위 반등 노린다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지난 2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포항스틸러스와의 경기에서 광주FC 조성권이 득점을 올린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내일 오후 4시 30분 대전월드컵경기장
1승 3무 1패 리그 7위...아사니 활약 기대

프로축구 광주FC가 승점 사냥을 위한 원정길에 오른다.

광주FC는 29일 오후 4시 30분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하나시티즌을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025 6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지난 라운드까지 무패 행진을 질주했다.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일정을 병행하면서 이른 패배다. 그러나 직전 경기에서 포항스틸러스에 2-3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 그 결과 1승 3무 1패 승점 6으로 리그 7위로 하락했다. 시즌 첫 패배로 순위가 밀려났지만,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다. 리그 3위 김천상무(승점 8)부터 리그 6위 강원FC(승점 7)까지 승점 1~2점 차이기 때문이다.

광주는 휴식 기간을 통해 지난 경기를 복기했고

재정비를 마쳤다. 아쉬웠던 판정 등을 뒤로하고 이를 동력 삼아 상위권으로 올라서고자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이정호 감독이 이끄는 광주는 지난 포항전을 통해 확실한 소속을 쟁겼다. 최경록이 긴 부상을 이겨내고 선발 복귀전을 치렀다. 오랜만에 홈 팬들을 등에 업고 선발로 나선 최경록은 특유의 왕성한 활동량과 센스 있는 패스로 기대감을 높였다. 최경록의 바통을 이어받아 교체 출전한 하승은 또한 시즌 첫 출전에도 몇 번의 기민한 움직임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또한 올 시즌 광주의 '언성 히어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으나 유독 골 맛을 보지 못했던 헤이스는 마수걸이 골을 터뜨리며 본격적인 득점포 가동을

예고했다.

상대 대전은 만만치 않은 저력을 지녔다. 겨우내 적극적인 보강을 통해 단단한 공수 밸런스를 갖췄다는 평을 얻고 있다. 실제로 리그 초반 5경기에서 4승 1무(승점 13)로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아시아 무대에서 실력을 입증한 이정호 감독과 선수단은 이번 경기에서 꼭 승점을 따내겠다는 각오다. 더욱이 대전과의 경기엔 불운은 공격진에 알바니아 대표팀 차출로 잠시 자리를 비웠던 '에이스' 아사니가 합류한다. 아사니는 3월 A매치 2연전 첫 경기인 잉글랜드와의 일전에서 선발 출전했으나 두 번째 경기인 안도라전에서 체력 안배자 휴식을 취했다. 이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대전전을 준비하고 있다.

ACLE와 코리아컵을 병행하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광주는 승리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광주가 대전을 꺾고 상위권을 향한 순위 반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FC U15, 전국소년체전 광주 대표로 출전

조선대FC 9-0·북성FC 5-1 승리로 최종 발탁
임준형 감독 "더 발전해 나가는 선수단 만들 것"

프로축구 광주FC U15 선수단이 광주 대표로 전국소년체전대회에 나선다.

광주 U15는 지난 22일 광주 보라매 구장에서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전대회 광주 대표 선발전'에서 광주북성FC U15를 5-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에 광주 U15는 오는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경상남도 김해에서 열리는 제54회 전국소년체전대회에 광주시 대표로 나서게 됐다.

광주 U15는 앞선 19일 조선대 U15와의 경기에서 9-0, 22일 북성 U15 상대 5-1이라는 압도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등 전국대회에 대한 기

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다.

특히 정이서(FW·3년)는 두 경기서 4골을 몰아치는 골 결정력으로 팀의 에이스이자 기대주다운 면모를 독특히 보여줬다.

임준형 광주 U15 감독은 "선수들의 근성과 투지가 우승을 만들었다.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며 "5월에 열리는 전국대회에서 더욱 기량이 발전된 모습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이정후·배지환의 도전 시작...MLB 개막전 로스터 진입

이정후, 신시내티와 원정 경기 3번 타자 중견수 출전
배지환, 시범경기 '바늘구멍' 경쟁 뚫고 2년 만에 합류

지난 시즌을 부상으로 마감해 아쉬움을 남겼던 이정후(26·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사진)의 진자 도전이 시작된다.

샌프란시스코 구단은 27일(한국시간) 개막 로스터 26명의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정후는 루이스 마토스, 엘리엇 라모스, 마이크 여스트렙스키와 함께 4명의 개막전 외야수 로스터에 이름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이밖에 헤이든 버드송, 스펜서 비벤스, 카밀로 도발, 조던 힉스, 에릭 밀러, 로비 레이, 랜디 로드리게스, 타일러 로저스, 랜던 루프, 루 트리비노, 저스틴 발렌타, 라이언 위커, 로건 웹(이상 투수), 패트리 베일리, 샘 허프(이상 포수), 윌리 아다메스, 맷 채프먼, 타일러 피츠제럴드, 윌머 플로레스, 크리스천 코스, 케이시 슈미트,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이상 외야수) 등을 개막 로스터에 넣었다.

이달 중순 갑작스럽게 찾아왔던 허리 통증으로 선 이정후가 정상적인 몸 상태를 회복한 이상, 개막 로스터 진입은 기정사실이였다.

이정후는 전날 막을 내린 MLB 시범경기 최종전에도 정상적으로 출전했고, 경기 끝난 뒤에는 현지 중계방송사 인터뷰에서 "몸 상태는 정말 좋다. 최고의 구단 지원을 받고 건강하게 복귀했으니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매 경기 팀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아름다운 오라를 퍼크에서 나 역시 아름다운 퍼포먼스를 펼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정후의 올해 시범경기 최종 성적은 타율 0.250,

2홈런, 5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829다.

올 시즌 3번 타자로 자리를 옮긴 이정후는 개막 전부터 주전 중견수로 출전할 전망이다.

샌프란시스코는 28일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신시내티 레즈와 2025 MLB 정규시즌 개막전을 치른다.

시범경기에서 치열하게 생존 투쟁을 벌인 배지환(25·피츠버그 파이리츠)도 개막전 로스터에 포함됐다.

피츠버그 지역지 피츠버그포스트가제트 노아 헬스 기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피츠버그 개막 로스터 26인 명단을 공개했다.

배지환은 백업 외야수 한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잭 스윈스키와 나란히 승선했다.

배지환은 시범경기 타율 0.381(42타수 16안타), 스윈스키는 타율 0.375(40타수 15안타)로 두 선수는 나란히 시범경기 팀 내 최다 안타 1·2위를 차지했다.

배지환은 홈런 1개와 4타점, 3도루를 보태고 팀 내 득점 1위(13개)를 달랐다.

배지환이 개막 로스터에 이름을 올린 건 2023년 이후 2년 만이다.

지난해 배지환은 고관절 부상 여파로 부상자 명단에서 개막을 맞이했다.

배지환은 올 시즌 빠른 발과 내야와 외야를 오가는 수비 능력을 바탕으로 백업 야수 임무를 소화할 전망이다.

피츠버그는 28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도포파크에서 마이애미 말린스와 방문 경기로 2025시즌을 시작한다.

연합뉴스



광주시체육회는 27일 체육회관 회의실에서 전갑수 시체육회장, 김영삼 시체육회 사무처장, 전문체육지도자 등 관계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문체육지도자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광주시체육회, 전문체육지도자 28명 임명

106회 전국체전 선전 다짐...“광주체육 발전에 역할 다해줄 것”

광주시체육회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등을 앞두고 선수들의 훈련 지도에 전념하고 있는 전문체육지도자들을 임명하고 격려했다.

시체육회는 27일 오전 10시 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전갑수 시체육회장, 김영삼 시체육회 사무처장, 전문체육지도자 등 관계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문체육지도자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시체육회 소속 전문체육지도자들은 육상, 수영, 태권도 등 27개 종목 28명이다. 이들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전문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종목별 전문지도자들이다.

또 지난해 제105회 전국체전에 출전한 종목별 지도 선수들이 선전하는 데 기여했다. 광주선수단이 획득한 총 3만1203점 대비 6833점을 획득해

21.8%의 성과를 거뒀다. 지도자들은 이날 행사에서 대표선수 경기력 향상 및 전국체전 상위 입상을 위해 다짐했다.

시체육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수들의 훈련 지도에 여념 없는 체육지도자들을 위해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선수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전갑수 시체육회장은 "전문성을 갖춘 책임감 있는 지도자들이 광주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선수들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며 "광주체육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부탁하며, 올 한해 각종 대회에서 열정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한국핸드볼연맹은 3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2025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에 참가해 핸드볼과 하키키를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한다.

한국핸드볼연맹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참가

핸드볼 하키키 소개·슈팅 체험 기회 제공 등 다양한 부스 조성

한국핸드볼연맹은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2025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스포엑스 2025)'에서 핸드볼과 하키키를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포엑스 2025'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무역협회,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지난 200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포츠 박람회다. 올해 행사에는 핸드볼연맹을 비롯해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320여 개의 국내외 스포츠 단체 및 기업들이 참가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스포엑스에 참가한 핸드볼연맹은 남녀통합 핸드볼리그인 하키키의 마케팅

팅, 전력분석시스템, 생중계 서비스 등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핸드볼을 흥행과 경기력 등 여러 지표에서 경쟁력 있는 스포츠로 도약시키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또 연맹은 핸드볼 저변확대를 위해 전국 초등학교에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학교형 스포츠 '핸볼'을 소개하는 공간도 마련했다.

실제 이날 핸드볼 부스를 방문한 관람객들은 하키키 소개를 경험하는 한편, 핸볼 체험존을 즐기며 큰 관심을 보였다.

한국핸드볼연맹은 "지난해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유일한 구기 종목인 핸드볼이 하키키를 통해 대중화되고 인기 종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